

『건강관리사업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 보건 증진에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徐東漢씨

시원스럽게 펼쳐진 창원공단을 가로질러가자, 그 끝썸에 탁 트인 공간이 펼쳐졌다. 6만여평이 대지 위에 도민을 위한 갖가지 기관이 여기저기 자리잡고 있었다. 교육위원회, 방송국……. 가장 안쪽에 도청건물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경남의 힘을 보여주듯이.

그날 기자가 찾아가간 사람은 徐東漢씨(40세, 경남 보사국 보건과 방역계 만성병담당)다.

보건 관련분야에서만 14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고 겸손해하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는 그만큼 신중성과 정확성이 뚝뚝 베어 나왔다.

그는 현재 방역계에서 예산사무 및 기생충, 건강관리 등에 관한 거의 모든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 까요?

“묵묵히 최선을 다해

경남 보사국 보건과 방역계

『'87년도에 19개군 농어촌 부녀자중 7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했습니다. 1,000여만원의 도비를 들여 자궁암, B형감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검사를 건협과 함께 실시했죠.

과거에 비해 국민들의 보건의식이 향상되어, 이러한 질병들의 검사가 왜 필요할지를 알게 되면서 과거의 소극적이었던 태도로부터 차츰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결과, 생각했던 것보다 농어촌 부녀자들의 성인병 유병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자궁암의 경우, 전체 유병율의 50%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올해는 그런 결과를 토대로 총 2,00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검사대상자수나 검진내용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농어촌 부녀자 성인병을 조기에 발견해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는 또, 『우리가 하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민건강관리 정착을 통한 국민보건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민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해야죠”

만성병담당 徐東漢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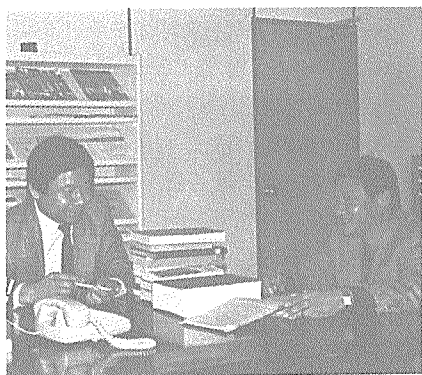
사업은 그 결실이나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가치를 인정받기 못하기도 합니다만 그럴수록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건강사업을 진행하고 의식을 깨우쳐 나가야 합니다.

金燦坤 방역계장은 徐씨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간에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徐東漢씨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적절한 것입니다.』

한편 徐東漢씨는 『金계장님은 모든 분야에서 상당히 과학적 행정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테두리 안에서라면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잘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해, 이 두사람사이의 인간적인 그리고 업무적 측면에 있어서의 이해와 사랑을 보는 것 같았다.

부인 정영희씨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徐東漢씨는, 『건강관리협회의 사업 물량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만큼, 결과통보의 신속성과



사람은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金燦坤 방역계장은 강조한다.

건강상담이나 정보의 구체화에도 힘써야 했고, 또 부속의원 의사의 증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영리보다는 크게는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기관인 만큼 누구보다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어야죠.』라는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